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4호 【루계 제25082호】 주제104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평양메기공장이 현대적으로 새로 개건됨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승리자의 명절로 경축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내각총리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해당 부문과 공장, 개건공사에 참가한 단위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지난해 12월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신 생생한 모습과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애국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유훈대로 메기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평양메기공장을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현대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일떠서고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걸어온 평양메기공장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던 공장중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뜻피우는 사업인 동시에 장군님의 높이신 권위를 보위하는 중요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판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공장앞에 맡겨진 메기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생산은 생산대로 밀고나가면서도 현대화공사에 동원된 해당 단위와의 협동작전밑에 50여개 대상의 개건 및 신축공사를 당창건 일흔돛전으로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한해사이

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어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새 공장, 불수욕 회한한 멋쟁이공장,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구내에 새로 모신 모자이크벽화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어머웠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말 잘 모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환하게 웃으시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하여 보내주라고 고무격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늘 뵈오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철의 진리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것을 심장에 쏘아박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지령실, 알깨우기호동, 아이뿔, 랭동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메기생산 및 공장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한해 생산량이 900여t밖에 안되던 공장 에서 올해에 1,800여t의 메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로력절약형양어, 물질약형양어를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양어 못면적과 로력, 물량을 늘이지 않으면서도 물고기생산량을 2배로 장성시켰다고 말씀하시였다.

아외못들에서 육설거리고있는 메기들을

보시면서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희한한 풍경이라고 기뻐하시였으며 랭동고마다에 산갈이 쌓여있는 랭동메기를 보시고서는 만시름을 다 잊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평양메기 공장을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현대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에 지능화, 정보화, 수자화가 실현 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음으로써

실내 및 아외못들의 물온도, 폐하, 산소량을 실시간 측정조정하고 메기들의 생육상태에 맞게 물공급과 먹이량을 조절하며 위생 방역대책을 세운것은 물론 생산과 경영 활동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까지 과학적으로 모의할수 있게 하였는데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양어의 현대화이자 양어설비의 현대화 이라는 관점밑에 고정 및 이동식자동먹이 뿌리기, 메기수확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도입하였을뿐만아니라 동경양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버림물의 리용물을

최대한 높이는것과 함께 물체순환체계의 과학화를 실현하였으며 태양열물가열기를 받아들이고 아외못들에 비닐막을 씌운것을 비롯하여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활용 함으로써 메기생산을 계절에 관계없이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종합사료공장과 발효사료가공장 등 사료 및 먹이첨가제생산 공정도 훌륭히 건설해놓았다고 하시면서 평양메기공장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한것이라고 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깊이 간직 할수 있게 과학기술보급기지과 문화후생 시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평양 메기공장의 모든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은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양어부분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이 메기양어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해에 2,000여t의 메기를 생산할데 대한 문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안에 물고기먹이소비단위와 생산원가를 양어에서 제일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의 수준으로 낮출데 대한 문제, 공장이 메기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른 단위들에 메기양어와 관련한 과학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거점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과 같은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여러 도들에도 일떠세울뿐만 아니라 공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메기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그 덕을 특별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인민군지휘성원들, 도당책임비서들, 내각, 성, 중앙

기관 일군들이 평양메기공장을 참관하고 따라배우게 하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라번지고있는 때에 평양메기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은 흥하는 내조국의 뜻깊은 10월에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자랑스러운 성과로 된다고 하시면서 만족도 대만족이라고

걱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을 돌아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현대화된 공장에 모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거듭거듭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어느 곳을 보아도 흠잡을데가 없고 만점짜리인 평양메기공장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앞날을 낙관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얼마든지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응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찾아가는 곳마다에서 자랑스러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니 이런 기쁜 일을 보기 위해 일하고있으며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에 이 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메기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낮이나 밤이나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하여 열사복무해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결사관철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시정지보도반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속에 평양메기공장에서 자랑할만 한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현대화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해당 부문과 공장, 시공단위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겠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당정책관철에서 온 나라의 앞장에서 서리라는 기대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즐기자게 나아가길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 새차게 굿이친다.

사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이 온 나라를 세찬 걱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당창건 70돐을 선조조선의 혁명적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가 배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밑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소집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 돌파기는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주체의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 보고있으며 당제 7 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뜻깊게 맞이할 불라는 결의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역사적 사명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력자이며 항도자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이며 강성건국을 위한 백두산대국의 힘찬 전진과 양양한 전도이자 우리 당의 사상과 영도력의 빛나는 파시이다.

70성상에 걸치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로정은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고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경제적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기에 걸친 빛나는 혁명적업적을 이룩하여온 긍지높은 전통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존엄높은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영도밑에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된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령의 당, 인민을 위하여 복부하며 인민대중과 온인민체를 이룬 불패의 당, 주체의 영도방식으로 혁명적당건설을 승리한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건설되었다.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며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 집권 당들의 사상적변질과 좌절의 역풍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해오실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게 조직명도하여 거창한 사회변혁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인민으로, 혁명의 위대한 주체로 키우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새기기를 이어 계속된 제국주의와 대제국주의의 대결투쟁을 승리해오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 혁명의 전위물결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이 땅의 모든 불행과 부강변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력사적공적이다.

당제 6 차대회에 있는 때로부터 지난 수십성상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광명한 미래에 이 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혁명적정신, 위대한 어머니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면모와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된 나날이다.

우리 당은 자주적인인민의 존엄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불패의 정치군사적위력으로 미제와 그 수괴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패배를 면하여 안고 사회주의보루를 철벽으로 지켜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무적불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나고 군대대단점이 실현되어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만년시련을 헤쳐나간 자립경제적 토대와 인민의 대부대,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한 재부들,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은 당의 영도밑에 마련된 지식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투쟁행로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는것은 혁명위업적승의 승대한 력사적과제가 빛나게 해결된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명령을 빛내게 실현한것을 신대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승고한 도덕의리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다.

우리 당의 백승의 력사는 백두산혁명의 위인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게 즐기자게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밑에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고 우리 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악적혁신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 있다. 회세의 영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운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영도적역할을 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존엄으로 권위되고 존엄높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을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혁명의 영도자로서 오셨다. 우리 당은 당제 7 차대회를 통하여 천만인민이 흥취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내뿜어 마린것을 영도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업을 더욱 힘있게 펼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된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힘찬 전진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영도밑에 혁명적대고조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새겨진 영광을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이 추구하신 강성부흥의 씨앗들을 풍요로운 결실로 꽃피우고 장구한 선군혁명의 풍요수확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귀중한 경험과 믿음직한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당의 영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의 력사적전진에서 다시고드린 주된 막강한 힘을 총괄받아서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간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악적혁신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 있다. 회세의 영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운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이 온 나라를 세찬 걱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당창건 70돐을 선조조선의 혁명적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가 배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당과 혁명대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전방으로 강화해나간다. 혁명적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혁명의 영도자로서 오셨다. 우리 당은 당제 7 차대회를 통하여 천만인민이 흥취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내뿜어 마린것을 영도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업을 더욱 힘있게 펼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된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힘찬 전진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영도밑에 혁명적대고조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새겨진 영광을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이 추구하신 강성부흥의 씨앗들을 풍요로운 결실로 꽃피우고 장구한 선군혁명의 풍요수확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귀중한 경험과 믿음직한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당의 영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의 력사적전진에서 다시고드린 주된 막강한 힘을 총괄받아서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간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악적혁신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 있다. 회세의 영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운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이 온 나라를 세찬 걱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당창건 70돐을 선조조선의 혁명적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가 배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당과 혁명대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전방으로 강화해나간다. 혁명적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혁명의 영도자로서 오셨다. 우리 당은 당제 7 차대회를 통하여 천만인민이 흥취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내뿜어 마린것을 영도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업을 더욱 힘있게 펼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된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힘찬 전진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영도밑에 혁명적대고조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새겨진 영광을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이 추구하신 강성부흥의 씨앗들을 풍요로운 결실로 꽃피우고 장구한 선군혁명의 풍요수확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귀중한 경험과 믿음직한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당의 영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의 력사적전진에서 다시고드린 주된 막강한 힘을 총괄받아서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간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악적혁신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 있다. 회세의 영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운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이 온 나라를 세찬 걱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당창건 70돐을 선조조선의 혁명적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가 배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당과 혁명대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전방으로 강화해나간다. 혁명적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혁명의 영도자로서 오셨다. 우리 당은 당제 7 차대회를 통하여 천만인민이 흥취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내뿜어 마린것을 영도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업을 더욱 힘있게 펼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된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힘찬 전진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영도밑에 혁명적대고조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새겨진 영광을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이 추구하신 강성부흥의 씨앗들을 풍요로운 결실로 꽃피우고 장구한 선군혁명의 풍요수확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귀중한 경험과 믿음직한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당의 영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의 력사적전진에서 다시고드린 주된 막강한 힘을 총괄받아서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간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악적혁신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 있다. 회세의 영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운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이 온 나라를 세찬 걱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당창건 70돐을 선조조선의 혁명적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가 배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당과 혁명대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전방으로 강화해나간다. 혁명적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혁명의 영도자로서 오셨다. 우리 당은 당제 7 차대회를 통하여 천만인민이 흥취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내뿜어 마린것을 영도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업을 더욱 힘있게 펼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된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힘찬 전진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영도밑에 혁명적대고조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새겨진 영광을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이 추구하신 강성부흥의 씨앗들을 풍요로운 결실로 꽃피우고 장구한 선군혁명의 풍요수확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귀중한 경험과 믿음직한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당의 영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의 력사적전진에서 다시고드린 주된 막강한 힘을 총괄받아서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간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악적혁신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 있다. 회세의 영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운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이 온 나라를 세찬 걱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당창건 70돐을 선조조선의 혁명적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가 배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당과 혁명대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전방으로 강화해나간다. 혁명적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혁명의 영도자로서 오셨다. 우리 당은 당제 7 차대회를 통하여 천만인민이 흥취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내뿜어 마린것을 영도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업을 더욱 힘있게 펼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된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힘찬 전진이 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영도밑에 혁명적대고조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새겨진 영광을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이 추구하신 강성부흥의 씨앗들을 풍요로운 결실로 꽃피우고 장구한 선군혁명의 풍요수확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귀중한 경험과 믿음직한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당의 영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의 력사적전진에서 다시고드린 주된 막강한 힘을 총괄받아서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간것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고 천만이 끓는다

총돌격 앞으로!

◇ 당창건 일흔둘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10월은 그야말로 날마다 흥하는 내 조국을 기쁨을 더해 주는 한의 10월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소집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에 접한 천만군은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가슴설레이며 심장의 북소리를 더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영도적역할을 높여 나가는 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며 될 일의 길은 대외이다.》, 《성스러운 70년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700년, 7000년으로 끝없이 이어갈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선언이다.》...

조선로동당의 물도 없는 저지자, 조연자, 방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이 살며 투쟁하는 조국 땅 그 어디나 당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외로 빛내주기 위한 총정의 열기,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새처럼 내뿜어지고있다.

◇ 총돌격 앞으로! 이것은 당의 위업을 총돌격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제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하듯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명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명의 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혁명적당이다. 혁명의 방향표를 역세게 들어주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 위업을 즐기게 이끄는 조선로동당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백전백승이 있다는것은 수십상상 존엄한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우리 인민이 배에 새긴 귀중한 철리이다.

오늘 우리 당의 존엄과 영도력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러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만년제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높은 영도적전위와 전투력을 지닌 위대한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에 우리 인민들모두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대하여 그토록 기대하는것이며 대회를 영웅적투쟁과 자랑찬 위훈으로 맞이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것이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으로 맞이하는것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불금의 투사들로 성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리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최대의 마력으로 최고의 실적을 올리며 진군 또 진군하여야 한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투쟁의 위력으로 당의 결심을 실천으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특히 당의 최후대, 이룩부대인 청년들이 당제7차대회에 총정의 선물을 드리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열기와 용명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한층더 제우로 간직하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당정책을 끝까지 견지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당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외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비약의 폭풍을 새처럼 일으키며 영웅적역할을 창조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통일단결된 힘과 우리 당의 위업의 필승불패성을 단련하게 파시해나가자.

주체혁명적의사적대회를 빛내일 력사적대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다음해 5월초에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우리 당의 존엄과 위력이 최상의 높이에서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역사의 요구와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은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결정은 온 나라를 융양차림 끓여버리게 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새기적변혁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당제7차대회를 소집하게 된것은 우리 당의 전진과 혁명발전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대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역사적사명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 당은 창건후 70상상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장상 중심성상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하였다. 시련은 강고하였지만 우리 당의 지도사상과 혁명적성격은 추로도 변함이 없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백전백승의 전략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인도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당의 영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실천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에 새긴 철의 신념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에 특기할 정치적사변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확고부동성을 다시금 힘있게 파시하는 역사적인 대회로 빛날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으로 맞이할 비상한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오직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대로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당의 위력을 백만으로 높여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의 존엄과 위력이 더욱 힘있게 펼쳐지게 될것이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평양시가 총돌격전의 선봉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은 우리 평양시민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격정과 한기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던 대외인가. 머지않아 천만군민의 그 소원이 성취되게 되었고 그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는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새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이며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열의이고 의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영웅적사상인 70년혁사의 총화이다.》

우리 당백사에 특기할 경표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이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리정표를 마련할 역사적인 사변으로 빛날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들이 많다. 하지만 창건 70상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자주, 선군, 사회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고 크나큰 격정에 넘쳐있는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

의 로선과 원칙을 백전백승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 국가와 인민을 주체의 조국, 자주적의의로 최고 존엄을 최상으로 빛내어주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는 참다운 사회주의를 건설할 당, 세기를 이어 계속될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전통을 새겨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진취성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이 땅위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한 위대한 당은 그 이름도 빛나는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하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 때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은 우리 평양시민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수명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 영광을

드리고있다.

우리 평양시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영원한 지도적정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 모두가 대추진전에 자랑찬 로력적성공을 안고 몇몇이 들어서게 하였다.

수도의 당조직들이 위대성교양, 김일성애국주의교양, 선념교양, 반제국교양, 도덕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러나가기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역세게 키워나가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 때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은 선군조선청년들의 가슴가슴을 위한 격정적으로 새겨 넣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처럼 내달려라!》 우리 당의 이 믿음의 구호, 투쟁의 구호가 청년들이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우리 혁명적의의가 걸려온 성스러운 로정은 위대한 당의 영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당에 대한 청년들의 신의와 신의는 절대적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영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것을 청년동맹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청년동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영인해 빛내어나가겠다.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동맹원들을 수령질서위의 전위투사들로 역세게 준비시키겠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며 선군시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선군혁명의 제1선창으로 용감 달려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오늘의 리수복, 조국선일이 되려는 선군시대

더 높은 알곡증산목표점령으로

우리 청년들의 고결한 지향과 불같은 열의에 맞게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짜고쳤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것은 수백만 청년청년들의 한결같은 심정의 분출이다.

우리는 백두산영웅청년동맹대원들의 사상정신태도와 투쟁기풍, 일본과 혁명적파란주의를 버려버리고 우리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통영양에 백두의 칼바람정진, 백두의 기상이 깎차 넘쳐나도록 하였다.

청년동맹원들의 모든 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영웅청년으로 값높이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배에 깊이 새기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반정진교양과 혁신삼시연사시 넓은철길건설, 삼시

사업과 향도의 감자농사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선군청년전위의 위업을 남김없이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는 청년동맹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최후대로 내세워주시는 청년동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영도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충진력을 더 앞장에서 폭풍처럼 넘어오도록 필사적인 5월의 대추진전으로 부부당당히 들어서겠다는것을 다시한번 굳게 결의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철

제26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진행

제26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특사적인 선전사와 전국경제공업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시로일용공업관리국산하 공장, 기업소, 가내작업반 등에서 생산한 수천종에 수십만점의 인민생활향상재전군의 불길눈

이 10월의 대추진전을 향한 생산물전진회를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새로 개발한 갖가지 영양식료품, 기능성화장품, 예능기질악형전기, 전자제품들과 설계와 가공, 제작을 특색있게 한 새형의 옷과 신발류, 가구류들이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연설자는 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부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소비품의 질을 높이며 가치수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막식에서는 심의결과발표되고 우수한 단위들에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제막식이 30일 평양제2백화점에서 진행되었다.

판매부품 일군들, 출판단위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일봉경공업상이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부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소비품의 질을 높이며 가치수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막식에서는 심의결과발표되고 우수한 단위들에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싱가포르녀성조직사회대표단 도착

말라티 다스 위원장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단장으로 하는 싱 재춘희 녀성중앙위원회 대표단이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로동자총일축구대표단

여러 곳 참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총일축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로동자총일축구대표단이 30일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이며 현 대적인 대중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다녔다.

최종진 민주로총 수석 부위원장은 감상특에 글을 남겼다.

이에 앞서 대표단성원들



남조선로동자총일축구대표단 옥류아동병원 참관

도이칠란드동아시아협회대표단 귀국

미모 프레코프 상임리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이칠란드동아시아협회대표단이 30일 평양에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북종합대학 의학대학 구강학부 교원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전염병병을 쫓아내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다.》

평북종합대학 의학대학 구강학부 교원들이 승고한 도덕적의의를 지니고 전염병병에 대한 구강치료사업에 힘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올해 초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선전사를 받아안은 학부의 교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이들은 뜻깊은 올해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더욱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다 개선하면서 전염병병과 영예군인들을 잘 도와주기 위한 문제 등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이날 학부상 한배준동무가 제기한 문제가 모두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학부앞에 제기된 구강교양사업을 보장하면서 지난 시기 전염병병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구강치료를 해준 경험은 살려 뜻깊은 올해에도 선의주의 로병들에 대한 구강치료를 해주는것이였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원들이 적극 호응해나갔다.

대학당조직의 지도밑에 학부장 한배준, 강좌장들이 한장한, 리상운, 김부삼동무들은 구강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학부에서는 이 사업에 졸업반 학생들은 인민적시 시인의 동정과 인민생활향상을 통하여 구강치료를 받아야 할 로병들에 대하여 료해하고 검진을 한다 등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확립하였다. 수백명에게 90여명의 로병들을 보살을 해야 하였다. 그러자면 적지 않은 물의 자재와 약제가 필요하였다.

학부의 교원들은 필요하면 철거재들과 약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썼다.

또한 높은 불려하는 로병들에 대한 왕진치료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구강치료를 받도록 조직사업을 짜고쳤다. 학부의 교원들은 나이가 많은 전염병병들이 편안히 치료받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구강외과과장 한장한 동무는 휴식일은 물론 명절날에도 로병들의 구강치료를 맡아하는 교원들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다하였다.

보철을 책임진 구강보철과 강좌장 리상운동무와 교원들도 담당과목교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이기간을 리용하여 몸이 불편한 로병들의 집까지 찾아가 정성껏 보철을 해주었다.

하기에 시인의 로병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을 성의있게 치료해준 구강학부교원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오늘도 대학의 구강학부교원들은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교수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면서 로병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적의의를 지니고 구강치료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 있다.

특기기자 송창윤



